

# 새판 짠 KIA, '왕조 재건' 성패 열쇠는 '원팀'

첫 외국인 감독 변화의 시대...코치진 바꾸고 프런트 조직 개편  
데이터 분석·유망주 발굴·마케팅 강화 등 전문·효율성 극대화  
외국인 선수 영입 관심 속 김선빈·안치홍 FA 계약 여부도 주목

KIA 타이거즈가 5일 팻 윌리엄스 감독의 취임식을 갖고 '변화의 시대'를 연다.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큰 틀을 짠 KIA는 최근 프런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왕조 재건'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KIA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속제가 남아있을까?  
KIA는 지난 2009년과 2017년 우승팀으로 우뚝 섰지만 그 맥을 잇지 못하고 이내 약팀으로 전락했다.  
결국 구단이 꾸준한 팀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은 외국인 감독이었다. 모기업은 처음부터 외국인 감독을 대상으로 제 9대 사령탑 영입 작업을 벌였고,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팻 윌리엄스 감독을 최종 낙점했다. 외부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 온 경쟁의 판에 현대 데이터 야구를 접목할 책임자라는 평가다.  
두 차례 왕조재건 기회를 놓친 구단은 '방향성'도 이야기한다.  
현장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단의 '방향성' 안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자들의 성과와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KIA가 추구하는 컬러의 팀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방향성과 함께 전문성과 효율성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코치진에 변화를 준 KIA는 이어 프런트 조직을 개편했다.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2실 8팀 체제였던 프런트 조직을 1실 1총괄 6팀 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단장 산하로 육성총괄 파트와 운영지원팀, 운영기획팀, 홍보팀이 운영된다.  
운영지원팀은 선수단(1군, 퓨처스, 육성)을 총괄해 지원, 관리하고 전력분석을 책임진다. 신설된 운영기획팀은 선수단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스카

우트·해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스카우트 그룹은 국내와 해외 파트를 분리하고, 해외 스카우트 그룹은 미국 서부와 동부 전담 코디네이터를 따로 둔다.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되면서 육성총괄 파트를 신설해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지원실장 산하 지원실은 재무팀, 마케팅팀, 비즈니스지원팀으로 구성된 구단 수익성 개선과 팬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및 KIA 챔피언스 필드(합평) 시설의 통합 관리도 책임진다.  
체질 개선을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은 아쉽다.  
KIA는 지난 달 23일 예정보다 일찍 코

치진 개편을 발표했다. 새로운 영입 인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부러부러 남아 있던 코치진 자리를 채우고 급히 보도자료를 냈다. 이 때문에 혼란 도중 코치진 정리가 이뤄졌고, 일부 코치는 보도 자료가 나온 뒤 해고 소식을 듣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마무리캠프에 앞서 예상됐던 문제였다. KIA는 시즌이 끝난 뒤 대대적인 코치진 정리를 예고했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캠프를 시작했다. 캠프 중간 코치진 정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지만, 돌발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올 시즌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선수 영입과 FA라는 큰 산도 남아있다. 15승 합작에 그친 터너와 윌런

드 두 외국인 투수의 교체 방침 속 터커의 잔류는 관심사다. 김선빈과 안치홍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FA 계약도 내년 시즌 성적은 물론 흥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와 FA 계약을 놓고 구단의 공식 멘트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FA계약도 빈 수레만 요란하다. 팬한 오해와 반목을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평가와 접근이 필요하다.  
새 판은 짰다. 이제는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이들을 하나로 묶고 '왕조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통합과 발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구성원의 존중이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중국 유학생들 농구대회 "프로 뺨 치네"

호남대 중국 유학생 농구팀이 지난 3일 광주대 학교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대학 중국 유학생 농구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주광 주총영사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호남대 2개, 전남대 2개, 광주대와 조산대 각 1개팀이 출전했다.  
<호남대 제공>

## 전남체육회장 선거인수 399명 확정

오는 12월 15일 치러지는 제37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수가 39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판진·초당대 경영학과 교수, 이하 선관위)는 4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제2차 회의 열고 전남체육회장 선거인수를 확정

하는 등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4건을 의결·확정했다.  
선관위는 전남체육회장 선거인수의 결정(안)을 비롯해 공정선거지침안 운영(안)에 관한 사항, 대의원대회기구 구성(안)에 관한 사항, 대의원대회기구 구성(안) 통보에 관한 사항, 전남체육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등 중요사항(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선관위가 정한 선거인수 399명에는 이미 확정된 기본 배경인원 118명이 포함됐다. 정식 대의원 수인 57개 정회원 중목단체장과 사·군체육회장 22명 등 79명과 중목단체별 분회 선수등록 수 상위 단체 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인원이다. 인구, 회원중목단체간 배치를 고려한 281명(추가 배경 인원)이 선거인수로 정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우승 상금 51억

바티, WTA 파이널스 정상...남녀 프로 테니스 통틀어 최다

애슐리 바티(1위·호주)가 역대 남녀 프로 테니스를 통틀어 최다 우승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바티는 3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여자프로 테니스(WTA) 투어 시세이도 파이널스(총상금 14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엘리나 스비틀리나(8위·우크라이나)를 2-0(6-4 6-3)으로 꺾었다.  
이미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짓는 바티가 받게 된 우승 상금은 442만달러(약 51억원)나 된다.  
이는 남녀를 통틀어 테니스 단일 대회 우승 상금 최다 액수다. 종전 기록은 올해 US오픈의 385만달러였다.  
올해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 등 단체 종목의 우승 상금이 400만달러였는데 이날 바티는 혼자 우승 상금 442만달러를 가져갔다.  
또 올해 4월 타이거 우즈(미국)가 우승한 마스터스 골프 대회 우승 상금은 207만달러로 이날 바티가 받은 액수의 절반도 안 된다. 이번 대회 준우승한 스비틀리나가 받은 상금이 240만달러로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 상금보다 많을 정도다.  
WTA 투어 시즌 최종전으로 열린 이 대회는 한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 8명만 모여 치르는 '시즌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비슷한 성격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는 10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하



WTA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애슐리 바티가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니토 ATP 파이널스가 있는데 이 대회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승해도 최대 287만1000달러를 받게 되므로 이날 바티가 받은 우승 상금이 훨씬 못 미친다.  
WTA 파이널스는 지난해에는 총상금 규모가 700만달러였고, 정상에 오른 스비틀리나는 우승 상금으로 236만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타이틀스폰서로 시세이도를 영입하며 총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400만달러로 올리면서 기록적인 우승 상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1월9일(토)  
▲광주호산회 11월9일(토) 대둔산단풍산행,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1월10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11월 10일(일) 함안방어산 패랑산 & 임곡유원지 단풍 산행,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휴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산사모산악회 11월10일(일) 무주적삼산, 06:20, 광주시의회 06:25, 운남21세기병원 06:3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6:4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6:50, 비엔날레주차장안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호단사회 11월10일(일) 지리산(성삼재-노고단-피아골), 06:40 연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홈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호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광주산친구산악회 11월10일(일) 고창선운산 산행, 06:30 체육관 정문 06:30, 에스엘오양병원 06:35, 월산동,오민석신경외과 06:38, (구)남구의회 맞은편 06:40, 농성동 S-OIL 주유 06:45, 신세계백화점 육교앞 06:50, 문예회관 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도로변 07:0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

11월13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1월13일(수) 경복봉화 정랑산 산행, 백운로타리아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빌딩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1월16일(토)  
▲광주호산회 11월16일(토) 두륜산 단풍산행,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한빛산악회 11월16일(토) 목포 해상K블라(왕복) 유달산, 고하성 탐방 천사대교 관광, 광주역앞 08:00, 운암동 예술회관후문 08:15, 비엔날레주차장 08:20, 하남-80m 신한은행 08:40 ※다음카페 광주한빛산악회 ☎ 010 3131 3580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82년생 김지영  
2관 말레피스트 2  
3관 82년생 김지영, 가장 보통의 연애  
4관 82년생 김지영  
5관 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6관 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9관 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조커  
7관 씨네커플 남씨의 아이  
8관 씨네커플 말레피스트 2, 빅 워시 빅 2: 황금열쇠 대소동 퍼펙트맨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기후전시 무등산 11.7~12.1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광주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11.7.(목)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 가을, 나의 삶을 노래하다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이태리 여행 11.27.(수) 7:30pm 광주문화회관 소극장